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 법회

7일 구인사 광명전서…2만여 명 동참



천태종은 1일 7일 단양 구인사에서 2만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한국 천태종을 창종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을 맞아 대조사의 유훈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월 7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도용 종정 스님, 춘광 총무원장 등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4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모든 천태불자는 천 개의 강에 천 개의 달로 뜨고, 만 개의 강에 만 개의 달로 뜨는 지혜를 증득해 활달 자재한 공덕을 베풀며 만생명의 행복을 선도해 나가자"며 "이 법석을 계기로 인류 평화와 국민화합에 더욱 기여하고 공헌하는 천태불자들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족의 암흑기에 태어나셔서 중생구제의 큰 원을 세우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은 천태종을 실천종단으로 건실히 발전시킨 등불이 됐다"며 "앞으로 천태종이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종교 문화적 토대를 넓혀가면서 국민 행복과 화합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도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천태종의 선대 스승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원력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함께 정진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는 박제국 행정부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대조사님의 거룩한 세계가 녹아있는 이곳 구인사는 충청북도의 자랑이요 위대한 자산이자 불자들의 수행성지로 우뚝 솟았다"며 원각대조사의 중생 구제 원력을 칭송했다.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도 "이 시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숭고한 정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오늘의 봉축법요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연수교육 2016년도 '풍성'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교육이 2016년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0년 시작 이래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연수 교육의 올해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고 풍성하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연수 교육 일정과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연수 교육은 오는 2월 23일 진행되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으로 시작한다. △'법계과정' 5개 강좌 △'사찰경영과정' 1개 강좌 △'경전과정' 6개 강좌 △'인문·과학·문화과정' 6개 강좌 △'전법과정' 7개 강좌 △'순례과정' 국내 3곳, 해외 5곳 등 총 44개 강좌가 개설·운영된다.

또한 올해에는 〈원각경〉, 〈십지경〉 교학 강의를 비롯해 △철학으로 그림 읽기 △원효와 하이데거의 대화 △신경과학에서 만나는 통찰의 세계 △양명학과 불교의 마음이론 △혜국 스님과 함께 하는 수행과 법담 △호남불교답사 △캄보디아, 라오스 성지순례 △부탄, 태국 성지순례 등 10개 강좌를 새롭게 개설됐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부문으로 사찰종무행정 이해 및 지역사회 대중들과 소통을 향상시키고자 구성한 사찰경영과정의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이 4박 5일에서 3박 4일로 변경된다. 연수교육 부여 점수 60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원, 연수 일정 및 계획 발표
강의·순례 등 총 44개 강좌
봉사활동 年 60점까지 확대
전문성 강화 '심화과정' 개설
매년 4000여 명 이수 '안정화'

자비나눔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28개 기관,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3개 기관, 종단 산하 및 기타 시설 3개 기관으로 총 164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4시간당 10점씩 년간 60점까지 연수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법계 과정으로 개설된 '종단리더십실무과정'은 3급 승가고시를 응시하시는 스님이, '종단리더십심화과정 Ⅰ, Ⅱ'는 2급 승가고시를 응시하시는 스님이, '종단지도자과정'은 1급 승가고시를 응시하는 스님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스님들의 전법역량을 증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한 전법 과정 중 '불교생활의례', '대중을 감동시키는 스피치 기술' 등 2개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심화과정으로 개설됐다.

연수 교육 참가 스님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수 장소인 한국문화연수원 이외에 총무원 국제회의장(서울 종로), 제19교구본사 화엄사(전라도), 통도사 연수원(경상도), 경주 경주 골굴사(경상도) 등 연수교육 장소를 확대해 시행한다.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2010년 1,600명으로 시작해 2015년 4,300명으로 증가했다. 시행 7년을 맞이한 연수교육은 불교와 사회 분야별 전문성을 깊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법 역량을 증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교육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스님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강좌형 연수 교육비 20만원 중 '승납 10년 미만 스님'의 교육비 50%(10만원)를, 일반 스님들은 25%(5만원)를 종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사찰경영지도자과정과 순례연수는 연수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와 국민들에게 유익함 전하는 한 해로"

조계종, 태고종 등 불교계
신년하례·시무식 잇달아

불교 각 종단과 단체들이 잇달아 시무식을 열고 불기 2560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1월 5일 대구 동화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금생(今生)에 이 견성법(見性法)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이 고귀한 불견성법(佛見性法)을 또 만나리오"라며 대중들이 수행에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에 앞선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열고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무원들의 노력이 종도와 불자들의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신년덕담을 통해 종단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유탁 종무원조합 위원장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신년 하례, 떡 절단식,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 종무기관 시무식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새해 업무시작을 알리고 있다.

태고종은 1월 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겸한 시무식을 열고 참회와 화합을 기반으로 종단 안정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장 설운, 전 총무원장 인곡 스님과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어 6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을 친견하는 신년하례법회도 개최했다.

태고종 승정이자 정상화추진위원장을 맡은 인곡스님은 '당부의 말씀'을 통해 종단 구성원 간 대화와 화합을 강조했다. 인곡스님은 "앞으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대화와 화해, 화합해야 한다"면서 "종정예하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종단 위계질서를 전 종도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태종도 1월 2일 단양 구인사에서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시무식을 개최했다. 먼저 설법보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귀하게 만난 인간의 몸과 부처님 법에 감사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자"고 신년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자리이타의 정신에서 인류의 공익과 공존이 성취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천태불자들이 앞장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자"며 "항상 서로 존경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창종 70주년을 맞는 진각종은 이에 앞선 1월 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연데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새해불공을 올리고 11일 업무를 시작했다. 진각종은 매년 새해를 맞아 국내외 심인당에서 일주일간 서원불공을 올리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도 1월 6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신년법회와 시무식을 열고 11대 집행부 업무를 시작했다.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비구니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비구니스님들이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이 되어 줄 것임을 잊지 말고 일하는 비구니회가 되도록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11대 집행부 소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노덕현 기자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 21일 출범

비구니 복지시설장 40여 명 뭉쳐

한국불교 복지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이 전문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할 단체를 조직한다.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이하 한비복실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회칙 제정·회장단 인준·2016년도 수입 및 사업예산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비복실회는 복지 전문 비구니스님들이 모여 각 기관별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비구니 관장 위상 정립 및 권익보호에 힘써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비복실회는 이날 초대회장에 상덕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부회장 정관(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희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스님을 회장단으로 인준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부회장은 △서울 지완(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강원 묘근(속초시노인복지관장) △충청 동준(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장) △부산경남 선공(영도구노인복지관장) 스님 등이 맡는다.

부회장 정관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이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서로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사회를 맑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비구니스님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